지리산 '체험 학습' 버스 추락

중학생 5명 사망·30명 중경상

가파른 내리막길 브레이크 파열 추정

88년 횡단도로 개통 후 첫 대형사고

지리산 노고단 산행을 마친 중학생을 태운 관광 버스가 횡단도로에서 추락, 5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1988년 지리산 횡단도로 개통 이후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5명이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오후 2시13분께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수도암' 인근에서 순천 매산중학교 1학년9반 33명(남 20명·여 13명) 등 35명이 탄 S여행 소속 전남 70자 3702호 관광 버스(운전자 김모씨·43)가 천은사 방향으로 내려오던 중 30m 언덕 아래로 추락했다. 〈도면〉

이 사고로 김관식(13)·정직한(13)군 등 5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구례병원·순천 한국병원·남원의료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고 당시 버스 밑에 깔려 중상을 입은 학생들이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상태가 심각한 배모군 등 3명은 전남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버스가 구른 지점은 지리산 성삼재와 천은사에서 각각 3㎞가량 떨어진 곳으로, 일명 '아홉 사리' 고개라고 불리는 해발 760m·경사도 30도의 가파른 내리막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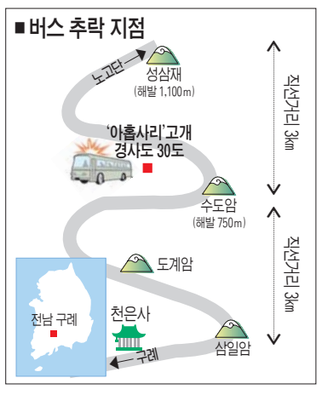
매산중학교 1학년 학생 120명은 이날 서모(여·52) 교사 등 4명의 인솔로 지리산 성삼재~노고단(해발 1,507m)까지 등산을 한 후 버스 4대에 나눠 타고 학교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사고 직후 119와 경찰 130여 명이 현장에 출동, 2시간 만에 구조작업을 마쳤으며, 관광 버스의 브레이크 고장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구조대가 도착한 현장에는 차량 의자·신발·TV 등이 널브러져 있고 나무들이 송두리째 쓰러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해 보니 차량 밖에 5명이 쓰러져 있고 차량 안에는 학생들이 뒤엉켜 있는 등 처참했다"며 "빽빽이 들어선 나무들이 완충 역할을 해서 그나마 사망자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오민규(13)군은 "느닷없이 버스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며 "대부분의 학생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30도 경사의 가파른 길을 내려오던 버스가 브레이크 파열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버스회사 및 학교 관계자들은 상대로 과실여부를 조사 중이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사망자=▲김관식(13) ▲정직한(13) ▲허상구(13) ▲박수향(13) ▲신규호(13).

순천 매산중학교 1학년생들을 태우고 지리산 횡단도로를 내려오던 중 30m 언덕 아래로 추락한 사고버스 주위에서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버스가 구른 곳은 '수도암' 인근 해발 760m에 경사도 30도인 S자형의 가파른 내리막길이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더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 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본사:(062)514-3002 ▶공장:(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점:(062)525-9002 ▶전주점:(063)271-5051

사랑의 PC조립 전남체신청이 25일 조선이공대 공용컴퓨터실에서 개최한 '사랑의 PC조립 체험행사'. 광주·전남 소년·소녀 가장 50명은 이날 전남체신청의 '내 고향 IT 봉사단', 조선이공대 컴퓨터정보학과 학생 등과 2인 1조로 중고 컴퓨터를 뜯어보고 조립하면서 기본 수리와 정비 요령을 배운 후 자신의 공부방으로 갖고 갔다. 이들에게 제공된 컴퓨터는 광주시청에서 기증받은 펜티엄 Ⅳ급 1.7㎓이상으로, 윈도 XP가 설치됐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내리막길서 과속·일부 학생 서 있었다"

■사고 순간 및 현장

지리산 노고단 등반 후 뿌듯한 마음을 간직한 채 돌아오던 중학생 5명이 숨진 버스 추락사고 현장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학생·교사 등 35명이 탄 관광 버스는 브레이크가 파열, S자형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가속도가 붙었다. 성삼재를 출발한 4대의 버스 중 두 번째로 달리던 사고버스는 앞서 가던 버스를 추월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언덕 아래로 굴렀다.

소나무가 들어선 70도 경사의 벼랑을 수없이 구르던 버스는 나무 등에 부딪쳐 뒤집힌 채 멈춰섰다.

부상이 심하지 않은 학생들은 안전벨트를 풀고 창문으로 빠져나갔지만 차량 안에 있는 친구들을 꺼내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좌석용 커튼이 찢긴 채 널려 있는 나무들은 송두리째 쓰러져 사고 당시의 처참한 순간을 보여줬다.

경찰은 버스가 운행 중 안전수칙을 어기고 일부 학생들이 서있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부상자들은 "사고 직전 몇몇 친구는 서 있는 상태였다"며 "차가 너무 세게 달려 '천천히 운전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그대로 가다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2000년에 구입한 버스가 브레이크 파열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버스회사 관계자를 불러 정비 불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학교에는 자녀가 무사한 지 묻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는 숨진 학생들의 명복을 빌거나 부상자의 쾌유를 바라는 글이 수백여 건 줄을 이었다.

한편 학교 측과 순천 교육청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이송된 병원에 교사 등을 급파하고 긴급회의를 여는 등 사고 수습에 들어갔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40대 운전자 사고차 피하려다 자신이 몰던 차량에 깔려 숨져

교통사고 현장을 피하려던 트레일러 운전자가 차 밖으로 튕겨나가 자신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25일 새벽 5시30분께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7.7㎞ 지점에서 광주 방향으로 달리고 있던 경남99바34XX 볼보 트레일러(운전자 김모·45)가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이 충격으로 운전석 유리창 밖으로 떨어져 트레일러 뒷바퀴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고속도로 순찰대 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트레일러 앞을 달리던 아반떼 승용차가 가드레일에 충돌한 후 2차선으로 튕겨나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던 중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트레일러 앞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천모(40·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 풍영정천·호수공원 조망의 최고 입지 |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 367-9000

광주·전남 주말·휴일 한낮엔 초여름

24~29도… 옅은 황사도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나들이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가 되겠으나, 지역에 따라 약한 황사가 예상된다.

광주지방 기상청은 "주말인 26일과 27일, 광주·전남지역에 구름이 조금 끼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낮 기온이 24~29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고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또 "토요일인 26일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전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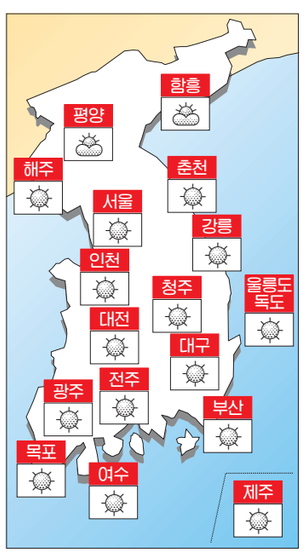
25일 나타났던 약한 황사(391㎍/㎥)는 26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

두둥실 흰구름

구름이 조금 끼겠다.

5월 26일 (음 4월 10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조금	14~28℃
목 포	구름조금	15~25℃
여 수	구름조금	16~24℃
완 도	구름조금	14~26℃
구 례	구름조금	12~29℃
해 남	구름조금	12~26℃
장 흥	구름조금	12~27℃
고 흥	구름조금	12~27℃
순 천	구름조금	13~27℃
영 광	구름조금	14~26℃
진 도	구름조금	12~26℃
전 주	구름조금	14~28℃
남 원	구름조금	12~28℃
정 읍	구름조금	14~28℃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10:00 22:41 썰물〈 02:55 15:44
여 수 밀물〈 05:06 17:50 썰물〈 11:26 23:43

▲해뜸 05:22 ▲해짐 19:37 ▲달뜸 14:23 ▲달짐 02:0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7(일)	28(월)	29(화)	30(수)	31(목)	6/1(금)
날 씨						
최저/최고	16/27	17/24	17/26	15/27	14/26	15/26

두꺼비 대이동

대구 망월저수지서

국내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로 추정되는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서 자란 새끼 두꺼비 수십만 마리가 대이동에 들어갔다. 〈사진〉

25일 환경관련 단체에 따르면 손톱 만한 크기의 이 두꺼비들은 한두 달 전 알에서 깨어나 지난 24일 오후부터 서식지인 수성구 욱수골로 향했다.

이들의 이동은 2~3일에 걸쳐 이뤄지며 이동 경로인 망월지에서 약 1km가량 떨어진 욱수골까지 가려면 불광사 약사여래상을 거치게 된다.

불광사 측은 두꺼비들에게 방해되거나 다치지 않도록 석가탄신일인 24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연등행사를 취소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도 두꺼비들이 밟히지 않게 자갈길에 부직포를 깔아주고 도로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펜스를 설치했다.

새끼 두꺼비들은 산으로 올라간 뒤 2~3년이 지나 어른 두꺼비가 되면 알을 낳으러 다시 망월지로 향하게 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출신 경찰 고위간부 잇단 중도하차

후임 서울청장에 하옥현·정봉채 치안감 거론

광주·전남 경찰의 선두주자인 홍영기(신안군 신의면) 서울경찰청장이 '보복 폭행' 파문으로 취임 6개월여만에 사의를 표명하자 지역 경찰이 술렁거리고 있다.

경찰청 차장·서울청장·경기청장·경찰대학장 등 네 자리인 치안정감에 지역출신이 한 명도 없는데다, 이제 치안감 4명·경무관이 9명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홍 청장 사임 이후 25일 진도출신인 서울경찰청 한기민 형사과장(총경)마저 직위해제 당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홍 청장에 앞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하차한 광주·전남 경찰 고위 간부는 박금성(영암) 전 서울청장·최광식(고흥) 전 경찰청 차장·한강택(고흥) 전 경찰청 차장 등이다.

지난 2000년 12월5일 서울청장으로 취임한 박 전 청장은 국민의 정부 당시 2년8개월 만에 총경에서 치안정감으로 3계급 초고속 승진했지만 고교와 대학 기록을 위조한 의혹이 불거져 최단명 서울지역 치안총수로 기록됐다.

최광식(58·고흥) 전 차장은 '윤상림 로비 사건'과 관련, 2006년 1월25일 돈 거래 의혹에 휩싸여 사표를 제출했다. 그해 12월엔 한강택(56·고흥) 전 차장도 물러났다.

현재 24명인 치안감 중 광주·전남 출신은 ▲하옥현(53·담양) 광주청장 ▲정봉채(52·광양) 전남청장 ▲김철주(52·여수) 인천청장 ▲이길범(53·순천) 강원청장 등 4명이다.

이중 행정고시 출신인 하 청장과 정 청장이 공석이 된 서울청장 후임에 유력히 거론되고 있다. 경무관(총 38명)은 ▲박영헌(54·광양)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 ▲최병민(56·화순) 경기경찰청 제1부장 등 9명이 광주·전남 출신이다.

광주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치안정감 자리는 지역안배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에서 승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광주·전남 출신 중 치안정감을 임명하고, 빈 치안감 자리에 고참 경무관 중 1명을 승진시켰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름철 식중독 주의보 발령

보건당국, 학교 급식소 등 집단 시설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25일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식중독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 경계 체계에 들어갔다.

보건당국은 28일부터 6월8일까지 학교 등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납품업소·도시락 제조업소·학교 급식소·청소년 수련원·김밥 제조업소·고속도로 휴게소 등 1천546곳의 집단급식관련 시설과 업소를 대상으로 각 시·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지하수·식재료·음식물·식수 등을 수거해 검사하고, 교차오염이 우려되는 도마·칼 등 조리기구와 종사자의 손 등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함께 실시, 급식환경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식중독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비누로 2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고,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해 익혀 먹고,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채팅으로 도둑질 모의… 빈집 털어

쌍나팔

○…인터넷 '다모임'에서 채팅으로 도둑질을 모의한 후 상습적으로 빈집털이를 해온 3명 중 2명이 경찰에 덜미.

○…25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홍모(23·목포시 상동)·조모(22)씨 등 3명은 지난 2월 목포시 산정동 박모(여·43)씨 아파트 복도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현금 등 47만원을 훔치는 등 지금껏 19회에 걸쳐 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홍씨 등이 절도 모의를 한 것을 발견한 후 목포·무안 일대의 금은방의 매입장부에서 피의자들의 거래 사실을 확인, 인터넷 IP 추적을 통해 검거.

○…절도 전과 6범인 홍씨 등은 지난 1월 목포교도소에 출감한 '감방 선후배' 사이였다고.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